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이스라엘 전 총리 “전북 이차전지 산업 성장 흥미”

(나프탈리 베네트)

### 김관영 도지사, 전북-이스라엘 교류 협력방안 논의 “다양한 협력 통해 실질적 결실 맺을 수 있길 기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나프탈리 베네트(51) 이스라엘 전 총리와 만남을 갖고 전북 및 새만금에 대한 발전구상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한-이스라엘 경제협력력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국제적인 창업 선도지역인 이스라엘과 전북이 협력할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키워온 경험을 갖춘 이스라엘과 놀라운 제조 기술과 생산기술을 보유한 전북도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IT·로봇·스마트팜·바이오 푸드테크 등 분야에서 선진적인 기술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농생명 및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 강점을 가진 전라북도와의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전북과 이스라엘의 교류는 전북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관심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김 지사와 나

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의 만남은 지난 18일에 이루어졌던 ‘한국-이스라엘 컨퍼런스’ VIP 갈라미팅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만남에서는 지난 갈라미팅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뜻깊은 협의가 진행됐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는 2013년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2개를 창업하고 성공시킨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2021년에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지도자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스라엘 경제부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총리를 역임했고 차기 총리로 물망에 오르는 등 이스라엘의 정치·행정영향력 있는 젊은 리더로서 평가받고 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스라엘과의 실행력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 뿐만 아니라 함께한 이스라엘 관계자들에게 전북 산업현황

과 새만금 투자환경 및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IT기술과 도내 기업의 첨단 제조기술을 결합하는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도와 기업인들이 조만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이스라엘측의 제안이 있었고, 전북도도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를 만나 우리 전북의 발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쁘다”며, “이차전지 산업, 농생명바이오산업, 스마트팜, 기회의 땅 새만금의 비전을 추구하는 전북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는 “한국이 반도체와 더불어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한 것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전북과 새만금이 농업과 이차전지의 중심지역으로 자리잡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재훈 기자



22일 대전 카이스트 학술문화관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전 총리를 비롯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길에를리히 요즈마 회장, 이원재 요즈마 한국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발전구상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 교통안전 위반 2666건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 130건 · 유해광고물 317건 등 적발

### 도, 도내 초교 주변 위해환경 점검 결과 발표

#### 지난 2월 27일부터 5주간 실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할 것”

전북도가 어린이 등하교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5주간) 실시한 도내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환경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시군·교육청·경찰청 등 926명이 참여해 426개 초등학교 주변 6,528개소를 점검했고, 3,118건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수칙 준수 등 2,666건을 적발하고 29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단속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행위 130건을 적발, 시정명령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불량식품 등 5건, 불법광고물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및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 선정적인 유해광고물 등 317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했다.

이 외에도 경미한 사항들은 자발적

으로 개선하도록 업주와 종사자에게 계도했다.

하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학교 주변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연중 지속되어야 하며, 모든 도민들께서 안전교육문화가 확산되도록 캠페인 등에 동참해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협요인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 참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토록 홍보하고, 점검도 강화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도내 대부분 황사 영향...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2일 오후 4시를 기해 전북 중부권역(전주, 익산, 완주)에, 오후 5시 현재 서부권역(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추가 발령했다.

중부권역이 22일 오후 3시 156 μg/m<sup>3</sup>, 4시에 173 μg/m<sup>3</sup>으로, 서부권역이 4시 164 μg/m<sup>3</sup>, 17시에 181 μg/m<sup>3</sup>

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중부권역이 160 μg/m<sup>3</sup>, 중부권역이 174 μg/m<sup>3</sup>, 서부권역이 181 μg/m<sup>3</sup>으로 고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PM10) 주의보는 18일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에 유입돼 발령됐으며, 당분간 고농도를 나타

낼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추후 발표되는 최신 예보와 실시간 대기질 농도 변화 확인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실외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이와 함께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앞서 국립의전원 먼저 설립을”

#### 도의회 환복위 · 공공의대유치지원특위, 정부에 촉구

국립의과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이 수년째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에 전북도의회 상임위와 특별위가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사건 3면>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공공의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의사단체의 반대 논리로 지난 5년간 묶여 있는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 또다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묻혀 유아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국립의전원은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일부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요청과 같이 해당 지역민을 위한 필수의료 인력 해당 지역민을 위한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보건의료 분야의 사관학교가 목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환복위와 특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사회는 공공보건 의료 체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온 국민이 체감하였고, 심각한 의료인력난으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의료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지역 간 의료격차 및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 국립의전원에 대한 우선 설립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